

함평, 전국 최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열었다

사업비 276억 투입…친환경·탄소중립 축산 실현 기대
이상의 군수 “축산 미래 경쟁력 상징…행정 지원 강화”

함평군은 함평축산업협동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마련했다.

최근 동함평산단 일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남오 군의회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등 내외 귀빈과 조합원, 축산농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저탄소 축산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준공식은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가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유공자 공로패 수여, 공장 버튼 오픈식 순으로 진행됐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276억원을 투입해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연면적 1만6929㎡ 규모로 마련됐다. 해당 센터는 저메탄 인증 조사료 및 TMF(완전배합발효사료) 생산설비를 갖춘 전국 최초의 친환경 사료 생산·유통 시설이다.

저메탄 조사료는 가축의 장내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축산 실현을 앞당기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 사료비 절감과 품질 향상,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시작으로 국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함평군은 최근 함평축산업협동조합과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주 함평축협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 농가가 힘을 모아 만들 결과물이다”

며 “고품질의 저메탄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함평전지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함평 축산의 미래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설이다”며 “앞으로 군이 친한

경·저탄소 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농업의 지혜 세계가 인정

세계중요농업유산 공식 인증
전통어업가치 국제사회 공유
등재 지역간 교류·협력 강화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열린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농업유산 공식 인증서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어업 분야 농업유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전통적 가치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인증서 전달은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인 고드프리 마그웬지(짐바브웨)가 직접 전달했다.

정 시장은 수여식에 앞서 카베 자레디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섬진강 유역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전통어업 관리 정책을 공유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전통어업 유산 보전 및 어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인화 시장이 유엔식량농업기구 고드프리 마그웬지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또 재첩 자원관리와 전통어업 계승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설명하고 ESG 기반의 상생관리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피력했다.

정인화 시장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수백년 간 이어온 지역 주민의 삶과 지혜, 자연과의 조화가 만들어낸 소중한 유산이다”며 “이번 세계중요농

업유산 공식 인증을 계기로 전통어업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어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전시회에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전통어구 등을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고, 전시와 함께 진행

된 시식행사에서는 재첩 외에도 특산물인 광양매실청, 매실캔디, 감박자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로마 방문을 계기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역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FAO와 협력을 통해 전통어업 보전과 국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맛과 멋 공유’ 해남미남축제 성료

농수특산물·먹거리 가득…24만3000명 방문

2025 해남미남축제가 팥글해남의 맛과 멋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가을빛이 물들어 가는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사흘간 연인원 24만3000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미남축제는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 명품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로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개막식은 평일임에도 오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으며, 해남 14개 주민들이 참여한 읍면별 특산물 뽐내기 퍼레이드와 해남8미 선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관광객 등 250명이 참여해 해남 515개 마을을 상징하는 해남배추로 김치 만들기를 체험하는 ‘515 김치 비빔’과 해남쌈과 김으로 만든 ‘2025 떡국 나눔’은 해남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해남8미로 선정된 해남밤상을 선보이

는 해남밤상관과 지역 음식점들이 운영하는 미남푸드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을 선보이는 주전부리관 등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문객이 몰려 해남의 가을 진미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축제장에는 해남 청정바다의 특산물인 김의 생육과정과 품종별 김, K-푸드에 대표주자로 수출되고 있는 김 산업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김 주제관이 운영되기도 했다.

해남군은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축제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축제로 마무리한 것은 물론 소방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명현관 군수는 “팥글해남의 품요로운 계절을 담은 해남미남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축제로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더욱 건강한 해남의 맛과 멋을 전하는 축제를 준비해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58239@gwangnam.co.kr

영광, 장애인 취·창업교육지원센터 개관

대강당·컴퓨터실 등 마련…“따뜻한 지역사회 구축”

영광군은 최근 장애인복지타운 광장에서 장세일 군수와 도·군의원, 장애인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7월 준공됐다. 기자재 구입과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조사와 운영인력 채용을 마치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한 교육장은 장애인 일자리와 교육 기회 확대라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대강당과 컴퓨터실을 포함한 프로그램실 5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교육 인원에 맞게 규모별 프로그램실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4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기본소득 영광의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장애인의 행복을 응원하고, 새롭게 단장된 센터가 모두의 희망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



영광군은 최근 장애인복지타운 광장에서 장세일 군수와 도·군의원, 장애인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구례, 하반기 인재육성장학금 9574만원 지급

성적우수 학생 등 69명 대상…최대 200만원 지원

구례군은 최근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인재육성장학금 9574만원(69명)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장학생은 대학생 54명, 고등학생 11명, 검정고시 합격자 4명 등 총 69명이다.

대학생은 성적우수, 다자녀, 다문화 분야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됐으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등학생은 올해 전국영농학생축제 입상자에게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70만원, 검정고시 합격자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심위원회의는 또 내년도 인재육성기금 운용과 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19억원을 투입, 구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7개 학교 교육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인재육성장학금, 명문 학교 육성, 미래·체육인재 양성, 교육자 치협력지구 운영, 교복 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등이다.

김순호 군수는 “인재육성기금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

장흥 군민 직접 내년 군정 예산 결정

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8개 사업 확정

장흥군은 최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의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장흥군은 지난 2021년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주민이 직접 군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행했다.

청년·청소년(중학생)·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까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공모를 통해 총 25건의 다양한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 이후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8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회의에는 15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정된 사업은 향후 예산 반영 여부와 금액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2026년 장흥군 예산안에 편성된다.

이후 군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노영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